

FTA와 계육산업

# FTA와 우리나라 계육산업의 미래



최 충 집 대표  
마니커 농산

소소하게만 들리던 UR(우루과이 라운드)농업 협정이 1993년 12월 타결되고 1994년 3월 11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사무국에 제출된 우리나라 최종 이행 계획서는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주요국과 20회에 걸쳐 양자간 협의와 GATT 사무국 주최로 3차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종 우루과이 라운드 농협 협상 이행 계획서 중 축산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쇠고기〉

- 2000년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고 2001년부터 자유화하기로 함.
- 수입쿼터는 1994년 106,000톤에서 2000년 225,000톤까지 늘리기로 함.
- 관세율은 1995년 43.6%에서 2001년 41.2%로 낮추기로 함.

## 〈돼지고기〉

-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고, 관세율은 1995년 37%에서 2004년 25%로 낮추기로 함.

## 〈닭고기〉

-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고, 관세율은 1995년 35%에서 2004년 20%로 낮추기로 함.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수입산 닭고기와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5년 35%의 무역관세로 보호를 받아 오던 국산 닭고기는 10년간 매년 관세가 1.5%

씩 낮아져서 10년 후 2004년에는 20%의 무역관세로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사이(15%의 관세가 낮아지는 동안)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수입산 닭고기의 시장 잠식은 약 23~24%에 달했다(〈표 1〉 참조). 2004년 자급률 91%과, 2005년 자급률 87%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입, 수출 등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는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 기구)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WTO는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분쟁 해결을 전담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

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2001년 11월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상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국간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여 지지부진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접 이해 당사자국간의 협상으로만 진행되는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관세를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2011년 8월 20일 현재)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총 7건 44개국과 FTA 협정이 체결 발효되었다.

〈표 1〉 닭고기의 생산량, 수입량과 1인당 소비량 변화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천톤)	278	264	248	236	261	267	291	287	287	301
수입량(천톤)	10	17	12	45	66	80	91	98	29	46
1인당 소비량(1kg)	6.3	6.1	5.6	6.0	6.9	7.3	8.0	7.9	6.6	7.5
자급률(%)	97	94	95	84	80	77	76	77	91	98

\*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2006, 농림부

\*\* UR(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과 계육산업과의 관계를 요약해보면

1. UR 체계에서의 닭고기 시장은 1997년 7월 1일 완전히 수입개방 되었다.

2. 닭고기 수입 관세는 1995년 35% → 2004년 20%로 매년 1.5%씩 감소되었다.

3. 10년 동안 수입산 닭고기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은 23%~24% 달했다.

우리나라와 FTA 협상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미국은 협정문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의회 승인이 지연되어 발효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협상 진행을 진행하거나 공동연구 등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총 17건 29개국에 달해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FTA 협정을 하게 될 듯하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 발효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한·미 FTA 체결 내용 중 축산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쇠고기

- 관세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긴급 수입제한조치(ASG:Agricultural Safe guards) 적용
- 발동기준 물량 1년차 270,000톤에서 매년 6,000톤씩 증량, 15년차에 354,000톤이 됨.
- 발동수준 1~5년차 실행세율, 6~10년 실행세율 75%, 11~15년 실행세율 60% 인상

### 2. 돼지고기

-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냉동육의 관세는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 단, 2011년 7월 11일 발표된 추가협상
- 내용에 의하여 돼지고기 1개 품목(냉동 기타 HSK 0203299000)의 관세를 2016

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하되, 현재 25%의 관세를 2012년에 16%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감축

- 긴급 수입제한조치(ASG:Agricultural Safe guards)는 냉장육에 대해서만 10년간 적용
- 발동기준 물량 1년차 8,250톤에서 매년 6%씩 증량 10년차에 13,938톤으로 증가
- 발동수준 1~5년차 실행세율까지 인상, 6~10년 실행세율 70%에서 매년 5% 이하하여 10년차에 50%까지 하향 조정 인상 적용

### 3. 닭고기

- 10년,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닭고는 냉동 닭다리로 10년 관세 철폐에 해당)
-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닭가슴살과 닭날개 냉동육은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
- 통닭(미절단, 기타, 냉동), 냉장 닭가슴, 닭다리, 닭날개는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와 계육산업과의 관계를 요약해보면,

1. WTO 체계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2. 닭고기 수입관세는 현재 20%이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냉동닭고기의 경우 10년 후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년 2%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3. UR 체제하에서 수입산 닭고기 국내 시장 잠식 23%~24% 수준을 고려해 보다면 FTA 발효 이후에 국내시장 잠식은 상당부분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
4. 닭고기의 경우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ASG(긴급 수입제한조치)의 보호조항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 볼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 1. 축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

닭고기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다.

특히 축사시설 중 가장 열악한 설비로 어렵게 운영해 온 육계 농장의 시설 현대화는 이제 시급한 과제이며 과거 비닐 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든 보온덮개 계사가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종계농장의 경우도 산란농장과 육성

농장의 현대화 시설 투자를 통하여 종란 생산비 절감과 우수 병아리 생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에서 걸림돌은 무허가 축사에 관한 문제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채권 담보에 대한 문제이다. 막연하게 문제가 많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집행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

### 2. 방역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2010년 12월 ~ 2011년 3월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과 HPAI(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병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 과거 돼지고기를 수출하던 대만의 구제역 발생이나, 닭고기를 수출하던 태국에서의 HPAI 발생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방역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 이제 국가 단위의 방역체계를 잘 구축하여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구제역이나 HPAI와 같은 악성 질병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3. 우수 브랜드의 육성이 시급하다

수입산 닭고기의 차별화 전략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과 닭고기 포장 의무화 제도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산 닭고기가 국산 닭고기로 둔

갑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를 이룩하는 기본적 소양은 만들었다고 본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단순 홍보하는 수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우수 브랜드의 육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종축의 개량, 품질 고급화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 계육산업의 종축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토종닭이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 보면 작은 수준으로 수입산 닭고기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국내산 종축의 확보 및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종축확보가 시급하다(Golden Seed Project).

또한 친환경 닭고기 (유기닭고기, 무항생제 사육 닭고기), 기능성 닭고기 등 품질 고급화도 병행이 필요하다.

#### 5. 닭고기 유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닭고기의 유통에 있어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Cold - Chain의 구축과 Chain의 유지에 대한 보장 및 생산 이력제를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특히 미생물의 오염, 잔류항생제, 기타 식품 안전 부분은 양보

할 수 없는 절대적 필요부분이다.

향후 종축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생산 이력제의 소비자 신뢰도는 FTA 이후 우리의 시장을 지켜주는 주요한 대응전략이 될 것이다.

#### 6. 수출전략 확립이 시급하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란 말이 있던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적극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닭고기가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면 절대로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수출전략을 잘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나 우리나라 닭고기가 확실히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다면 한류 문화바람을 타고, 대장금의 드라마를 타고, K-POP 아이돌의 노래를 타고 전 세계로 우리의 닭고기를 보낼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러한 수출 전략은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망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지원하고, 특히 수출 경쟁 대상국과의 상호 동등한 수출입위생조건 등은 사전 준비가 전제 되어야만 한다.

왜 우리나라는 대미 삼계탕 수출이 이토록 어렵기만 한 것일까? 업계의 한사람으로 스스로 자문해 본다. 